

국가균형발전위, 광양 산업현장 '발걸음'

'찰스 3세 국왕 정원' 순천으로 보러오세요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출범 앞두고
지방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모색
정 시장, 세무서 설치 등 현안 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근 광양시를 방문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63명이 본격적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광양시를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4회 지방시대 워크숍 일환으로, 지난 3일 광양제철소를 비롯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여수 GS칼텍스 등 전남 동부권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지방산업 육성과 지방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일행은 오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광양을 서천면 광양숯불구이 특화거리에서 광양불고기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광양제철소로 이동했다.

간담회장에는 주순선 부시장이 참석해 균형

위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그간 풀기 어려웠던 광양시 현안에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광양 일정을 끝까지 함께 했다.

광양제철소 소본부에 미리 도착해 균형위 일행을 격려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가의 주요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살지 않으면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며 "균형

위가 갈수록 소멸되는 지방을 살리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만큼 앞으로 더욱 더 광양시를 비롯한 지방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양제철 동호안에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산업과 수소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의 신산업 투자 계기가 마련돼 기업뿐 아니라 광양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랫

동안 기업 투자에 발목을 잡았던 시행령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앞장서 추진 예정인 위원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화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광양세무서 설치, KTX-이음 광양역 정차, 관광단지 지정기준 완화 등 주요 광양시 현안을 이정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제철소 홍보 브리핑룸에서 포스코그룹과 광양제철소의 홍보영상을 관람한 일행은 뒤이어 광양제철소 열연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철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세계 최대 단일제철소라는 위상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구성·운영하게 될 현 정부 핵심기구로,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다.

세종시에 설치가 결정된 위원회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성진 기자

정원박람회 인기 포토존 눈길

(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최근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맞이해 '찰스 3세 국왕 정원'을 소개했다.

7일 조직위에 따르면 이 정원의 모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영국정원'이었다. 하지만 조직위가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영국 왕실의 협조를 구한 결과,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가받으면서 '찰스 3세 국왕 정원'으로 불리게 됐다. 정원 입구에 세워진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등신대는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무척 인기 있는 포토존이기도 하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위치한 찰스 3세 국왕 정원은, 빅토리아 시대 폴리팜가든을 모티브로 조성했던 정원에 장미터널을 더해 더욱 영국스러운 정원으로 탈바꿈했으며, 장미가 개화하는 5월 중순부터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순천=박경식 기자

'꼬마 반려나무 기획전시' 순천정원박람회 학교정원

(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오는 6월 18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있는 학교정원 일원에서 '꼬마 반려나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적 권위의 일본분재 청수전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문치호 작가 초대전으로, '내 손안에 펼쳐지는 나만의 정원'이라는 전시 주제에 걸맞게 꼬마 반려나무 100여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 기간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물, 수석, 이끼로 돼 있는 자연 전시관 내에서 10cm 내외의 귀여운 꼬마 반려나무와 산야초 분화, 수석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곰솔, 향나무, 장수매 등 전통 반려나무부터 실험적인 이끼 반려나무까지, 작은 규모 안에서 다양한 디테일을 가진 반려나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꼬마 반려나무는 화분에 작은 나무, 화초 등을 심어 멋진 경관을 연출하게 하는 축소된 자연으로, 이는 곧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다.

전 세대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반려나무. 박람회장에 발을 디딘 관람객이라면 이번 전시를 통해 변화무쌍한 사계절의 모습을 띠며 다양한 자연의 형태를 담아낸 반려나무 작품들을 기대해도 좋다.

조직위는 작은 생명이 깃든 꼬마 반려나무의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때로는 위안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박경식 기자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여수, 김성택 선생 선정

여수시가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여수 삼산초대 태생 '김성택 선생'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김성택 선생은 1907년 일제가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해산시킨 데 분격해 황준성 의진에 가담, 안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일진 회원 등 친일파를 공격하는 의병활동을 했다. 1909년 5월 4일과 6일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도군 청산도와 여수도에서 이장들을 주막에 소집, 이병현 등과 함께 군사금징수 활동을 하던 중 일본군에 체포됐다.

1910년 11월 12일 광주지방재판소 목포지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른 후 간도로 이주해 독립운동 활동을 펼쳤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작년 8월부터 독립운동가유족회와 공동으로 지역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 선정해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83명을 추서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단 회의서 계획 발표

고흥군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주제로 전체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향후 개발절차 및 지자체별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과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흥군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주항공 도약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공영민 고흥군수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87.7km)과 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23.7km)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



고흥군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의지를 밝혔다. /고흥군 제공

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물류 이동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벌교-고흥읍~도양읍을 잇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공영민 군수는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발사체 관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고흥=진중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여수 청정계장, 대교동에 밀반찬 후원

유한회사 청정계장이 최근 여수시 대교동에 150만원 상당의 열무 물김치 50박스를 후원했다. 후원받은 열무 물김치는 대교동 저소득 독거노인 45가구와 어르신지킴이단 5가구 등 50가구에 전달했다. 박현숙 청정계장 대표는 "시장에 부드럽고 싱싱한 열무가 많이 나와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열무 물김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물김치를 받은 한 어르신은 "김치를 담가주시는 분들과 전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명호남 대교동장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김치와 같이 잘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광주 윤길중안과, 곡성미래교육재단에 성금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광주시에 있는 센트럴윤길중안과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곡성군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윤길중 대표원장은 "곡성지역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본업인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꾸준한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센트럴윤길중안과는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62에 있다. 작년 7월에 개원했으며 대학병원 수준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곡성=한정길 기자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백만불 수출탑

순천거점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도순)이 최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수출전문조직 워크숍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은 품목별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을 기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로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업인 실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환율 변동,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 단감, 키위 등 신선농산물을 현지 시장에 맞게 상품화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함으로써 이번 수출 백만불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순천=박경식 기자